미얀마 선원서 '지계의 삶' 배우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⑬ 빠옥 총림에서 생활 〈3〉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집단 좌선을 위해 선방을 오르는 길. 흰 대리석 계단이 높기만 하다.

생활 중 비로소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 팔재계의 불음(不淫)과 오계의 불사음(不邪淫)의 차이를 알았다. 원어도 다르다. 어제 빠옥 총림에 도착해 곧바로 주지 스님 사무실(Sangha Office)에서 입방절차를 행했다. 주지 스님은 나에게 삼귀의와 오계와 팔재계를 빠알리어로 선창하며 따라하게 했다. 익숙한 예경문이기에 잘 따라하니 반색한다.

원래 포살일은 출가비구가 매월 2회인데 비해 재가자는 4회이다. 날짜로는 8·14·15·23·29·30일로, '육재일(六齋日)'이라고 이름한다. 여덟 계에 따른 청정한 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 '8재계(八齋戒)'라고도 한다. 날짜로 6일처럼 보이는 것은 14·15일과 29·30일 때문인데 실제로 한 달에 4일정도로 보면 된다. 왜냐하면 인도의 역법 상 보름을 기준으로 할 때 14·15일과 29·30일 가운데 월별 따라 날짜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원에서 재가자의 팔재계는 그대로 포살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 스님 따라 낭송한 오계의 불사음계 원문은 "Kāmesu micchācārā veramaṇī sikkāpadaṁ samādiyāmi"이고 팔재계의 불음은 "Abrahmacariyā veramani sikkhāpadam samādiyāmi"이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러한 차이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마하시 선원에서도 선원장 스님께서 팔재계를 주실 때 속으로 미얀마에서는 "Kāmesu micchācārā"를 "Abramacariyā"로 쓴다로 생각하였다. 건성으로 양자를 동의어를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주지 스님에게 물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힘주어 차이를 설명해 준다.

오계의 불사음은 합법적인 배우자와의 성관계는 허용하고 그 외의 성관계는 금지한 반면 팔재계는 배우자를 포함한 일체의 성관계는 금지한 계라는 것이다. 순간 스스로의 무지함을 자책하는 탄식이 나왔다.

일전 인도에서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리산 실상사에서 동국대와 다른 대학의 불교전공자들이 모인 가운데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나와 故안옥선 교수가 초기불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여기서 'abrahmacariyā'를 '성욕 단절'로 설명하는 발표를 하였더니 참석한 불교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강한 이의제기를 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한문으로 범행(梵行) 또는 청정행으로 옮겨져 구체적인 의미를 간과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오래 전부터 인도 고대문헌을 통해 이 말의 쓰임새를 잘 파악하고 있어 자신하고 있었지만, 반발이 심해 일단 수긍하는 태도를 취한 기억이 난다. 학회에서는 당연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불교가 얼마나 생활불교와 멀리 떨어져 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즉 팔재계는 매 반월을 기준으로 8일·14일·15일이어서 육재일이라고도 한다. 이는 한 달 4번의 포살일로 계산된다. 재가자가 사찰에 가서 그날만큼은 출가자와 같이 오계를 넘어 추가된 세 개의 계로서 여덟 계율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특별정진이다. 이 같은 재가자의 포살은 초기불교 이래의 재가자의 수행정진일이다.

이전에 교계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논문에서 현재 7일 주기의 휴일인 일요일에 재가자의 특별수행일 복원 시행을 제안한 적도 있다. 하지만 불교에 입문한 30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는 한 번도 팔재계를 받아 본 적이 없다. 미얀마 수행처에 와서야 마하시 선원과 빠옥 총림에서 처음으로 재가자로서 팔재계를 받아본 것이다. 직접 생활 속에 부딪힘으로서 팔재계의 의미를 확실히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안 것이다.

며칠 뒤 양곤의 쉐오민 선원에서 위빠사나 공부를 하고 온 젊은 요기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한국의 빠옥 총림지부(2011년)에 〈예불문〉 자료집에서도 팔재계를 불사음(Kāmesu micchācārā)으로 옮겨놓았음을 보았다. 그리고 잘못된 성관계와 삿된 음행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팔재계의 불음은 일체의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계행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생활불교 차원에서 팔재계와 함께 특별수행 기일을 지키는 전통이 있었다면 마땅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교학과에서 〈계율론〉 강의를 수강해도 이 같은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는 없었다. 주지 스님이 특별히 설명을 해 주는 이유는 이전의 한국인 요기가 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가 팔재계 포살은 1달에 4회
불음계 지키면서 특별정진 시행
韓도 일요일을 정진일 지정해야

不淫과 不邪淫 차이점 알게 돼
불사음은 배우자와 성관계 인정
완벽한 성욕 단절은 불음 해당

오늘은 빠옥 총림에 도착한지 셋째 날(2012년 1월 24일)이고 미얀마 수행처는 42번째 날이다. 휴대폰 알람으로 새벽 3시30분에 맞추고 눈을 붙였으나 잠들지 못했다. 심신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간밤 한국 스님들과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어 피곤한 탓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간단히 씻고 함께 방을 쓰는 스페인 요기와 선방에 올랐다. 자리를 정해주는 스님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내 태도에서 신입생인줄 알았는지 어느 한 스님이 자리와 방석 등을 친절하게 준비해줬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선방 바로 아래 개인 처소의 스님이다. 오늘 다시 자리를 배정해주는 스님을 찾아 자리 문제를 확실히 하려했으나 찾지 못하고 대신 엊그제 보았던 한 스님이 모기장 등 칠판에 이름 적는 문제 등을 가르쳐줬다.

새벽 참선 중 여기저기 온 몸이 간지럽다가 드디어 손바닥까지 간지럽고 빨갛게 붓는다. 언젠가 상좌부로 출가한 한 스님이 빈대와 벼룩이 많으니 방석을 비닐로 감싸 벌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충고가 떠올랐다. 자리가 확정되면 하려했는데, 처소에서 스페인 요기에게 이를 말하자 방석을 바꾸라 조언해 준다. 그리고 침대를 가리키며 보라한다. 우리 방 침대 사방 끝을 투명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이다. 다가가 자세히 보니 침대 바닥 판자 사이사이를 모두 투명 테이프로 발라놓았다. 빈대·벼룩이 아래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처리해 놓은 것이다.

오전 참선 후 처음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외국인 사무소에 외국인 스님들과 재가자가 줄 맞추어 앉아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뒤에서 들으니 수행 점검의 스님은 체구는 그리 크지 않는데 영어로 하는 말이 조용하면서도 울려 퍼졌다.

내 차례가 되어 삼배를 하자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한국이라는 답에 목적을 묻자 "빠옥총림의 선법을 배우고자 왔다"고 답했다. 이에 스님은 "빠옥 총림의 특별한 선법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빠옥은 단지 지명과 관련해 붙여진 스님의 이름이고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청정도론〉을 중심으로 선법을 지도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한 빠옥 총림의 선법은 없다는 것이다.

"〈청정도론〉을 아느냐"는 스님은 질문이 다시 이어졌다. 안다고 답하니 여기서 행하는 법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바탕하고 있음을 스님은 역설했다. 계속해서 여실지견은 삼매가 바탕되어야 한다는 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삼매의 사마타를 강조했다. 내심 잘 찾아왔다는 기쁨이 일었다. 이는 내가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파악한 지관차제의 문제로 나 또한 논문과 토론에서 특별히 강조해 온 바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전에 어떤 종류의 수행을 해보았느냐"고 물었다. 위빠사나와 관련해서는 오래 전에 인도에서 고엔까(Goenka) 선원과 직전에는 마하시 선원에서 해보았다고 답했다. 이어 위빠사나 수행 시에 앉는 법에 대해 지도해줬다. 나의 체형에 따른 것인지 스님은 결가부좌보다는 반가부좌를 권했다. 계속해서 나에게 한번 앉으면 얼마 정도 지나 통증을 느끼는지를 물어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느낀다고 답했다.

스님의 조언이 이어졌다. 그럴 경우 다리를 바꿔 앉거나 평좌로 앉되, 앉는 부분을 높여 비스듬하게 앉으면 오래 앉을 수 있다고 조언해줬다. 스님의 이런 조언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최근 허리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에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도 오래 앉아있기 위해 신체 하중 역학을 요모조모 적용하며 터득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했다.

다음 단계로 스님은 고엔까 방법과 마하시 방법에 견주어 이곳의 호흡수행법을 지도해줬다. 고엔까나 마하시와 달리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하라고 했다. 호흡을 하면서는 다른 느낌과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보거나 알아차리려하지 말고 아예 무시해 버리라는 것이다. 스님은 다시 "마하시 선원에 있을 때 알아차림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할 때 집중(Sam□dhi)이 되더냐"고 물어봤다. 나아가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려 말고 오로지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는 코끝부위 또는 인중 부위에 집중을 하면 된다"고 설명해줬다.

초기경전과 〈청정도론〉 등의 상좌부 주석서에 나오는 호흡법이다. 이 지도법을 통해 확실히 빠옥 총림은 다른 수행처와 달리 사마타와 삼매를 기본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얼마나 머물 것이냐"고 물어 "약 한달 정도"라고 답하자 "인터뷰에 항상 참석하라"고 독려했다.

이후 삼배를 하고 뒤로 물러나왔다. 이곳에서도 마하시 등의 미얀마 수행처처럼 요기는 정해진 스님과 1대1로 공부를 점검받는다. 마하시 선원은 선원장 스님이 직접 한 명 씩 지목하며 질의 응답한 반면에 여기서는 입실의 순서로 차례차례 이루어진다. 또한 많은 대중이 모여 있기에 수행 점검 인터뷰는 여러 스님들이 맡아서 한다고 한다.

오전 인터뷰를 마치자 점심 공양시간이 됐다. 사찰 내에서 탁발이 이뤄졌다. 줄 맞추어 배식을 받았다. 아침에 주는 대로 모두 받았더니 음식양이 너무 많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찰 문화로 받은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 때문에 다 먹었더니 아직도 배가 불렀다. 점심을 거를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요식행위라도 하고자 몇 가지만 조금 받아서 들었다.

오후 1시부터는 집단 좌선 시간이다. 같이 방 쓰는 요기와 선방에 올라갔다. 선방은 거처로부터 4~5분을 도보로 가야한다. 스님들 처소를 지나 산 중턱에 큰 규모로 지어졌다. 선방에 오르기까지 흰 대리석 계단이 상당히 높다. 다음에 세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흔히 오른쪽 통행표시가 되어있으나 이상하게도 선방에 오르고 내리는 곳은 반대로 되어 있다. 올라가면서 높다하니, 스페인 요기가 열반의 경지는 이처럼 힘들게 올라 성취하는 것이라 말을 받았다. 이 말에 같이 웃으며 함께 선원의 계단을 올랐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